'차량2부제' 수면 위로…車 내수 비상

국민 72.2% "2부제 시행하면 동참할 것"

업계, 내수위축 우려 "근본대책 될수없어"

환율 급락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지난해 내수·수출에서 동반감소세를 보인 자동차 업계가 '차량 2부제'라는 또다른 암초를 만났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휴일인 21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대중교통 무료 정책으로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자동차 강제 2부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의무 2부제를 서울시장 특별명령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평창동계올림픽 대회기간 중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서울시내 차량 의무 2부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라도 시행령 개정을 신속하게 이루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프랑스 파리와 영국 런던이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 친환경등급제를 올 상반기에 실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국회 역시 비상조치가 발령될 때 민간 승용차를 대상으로 차량 2부제를 시행할 수 있게 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논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에는 국회의원 50명이 제안자로 이름을 올렸다.

환경단체도 차량 2부제에 힘을 싣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지난 18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부문에 한해 실시하는 차량2부제를 민간으로 확대하고, 상시 시행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전구물질(화합물을 합성하는 데 재료가 되는 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이 차량에서 가장 많이 배출되며, 특히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역시 지난달 18~20일 전국의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2.2%가 "차량2부제에 동참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업계는 차량 2부제가 가뜩이나 국내외에서 판매 후퇴를 겪고 있는 자동차산업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미세먼지는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온 이야기인만큼 차량 2부제가 당장 시행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며 "하지만 시행될 경우 불황으로 위축된 내수판매가 더 큰 악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사드갈등으로 인한 중국 소비자들의 외면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환율변동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종(FTA) 재협상 압박으로 수출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2부제는 가뜩이나 위축된 자동차 산업을 더욱 압박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2부제는 사실상 선거를 앞둔 정치포퓰리즘으로, 미세먼지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필터를 통해 공기를 걸러 산소를 포집하는 과정에서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수소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전체, n=13,000)

구분	월가구 소득 (단위: 만원)	상품구입 비용 (단위: 만원)	a. 온라인 지출비율 (단위: %)	b. 향후 온라인지출 증가비율 (단위: %)
전체	480	102	53	35
남성 40~60대	526	120	48	39
남성 20~30대	434	82	58	37
여성	470	100	54	32

a: Q. 지난 한달 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상품구입 비용은 어느 정도 입니까?
b: Q. 그렇다면 앞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상품구입 비용이 어떻게 변할 것 같습니까? (%온라인 훨씬 더 + %온라인 약간 더)

온라인 주목할 미래 주요 고객

40~60대男…많이벌고 많이 써

온라인 이용율 50% 이하로 낮지만, 증가 예상률은 높아

20~30대 남성의 온라인 소비 지출액이 50%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40~60대 남성은 소득도 많고, 지출도 더 크다는 점에서 주요 고객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소비자 조사 전문기관인 컨슈머인사이트와 한양대학교 유통연구센터는 최근 6개월간(7~12월) 소비자 1만3000명을 대상으로 '상품구입 행태 및 변화(40~60대)'를 추적 조사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전체적으로 지난 한달 간 지출한 상품구입 비용의 53%는 온라인, 47%는 오프라인이 차지했다. 40~60대 남성은 온라인 지출이 48%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으며 20~30대 남성의 58%와는 큰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는 질문에 40~60대 남성은 39%가 온라인 지출이 지금 보다 더 증가할 것이라고 답해 전체의 전망(35%)보다 높았다.

컨슈머인사이트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에서 남성 40~60대의 비중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소득도 더 많고 평균 지출도 더 클 뿐 아니라 온라인으로 옮겨가려는 의향도 크다"면서 "이들의 이동은 홈쇼핑·온라인 직거래·오픈마켓을 중심으로 스포츠/레저 용품·자동차 용품·가전/디지털 기기 등의 판매에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남성 40~60대는 소득도 많고 지출비용도 많은 우량고객이다. 이들의 가구소득은 월 526만원으로 전체(480만원)보다 46만원 많았고 쇼핑에 지출한 비용은 월평균 120만원이었다. 이는 20~30대 남성(82만원)과 여성(100만원)보다도 훨씬 많은 지출이었다.

20대 80% '맥주' 대신 '특정 브랜드' 주문

리서치업체, 소비자 음주 행태 조사…맥주 '고관여' 제품 변화

"OO 맥주 주세요." 20대 젊은이들은 식당에서 맥주를 시킬 때 특정 브랜드를 꼭 집어서 주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오비맥주는 모바일 리서치 업체 아이디인큐에 의뢰해 전국 20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맥주를 주문할 때 자신이 선호하는 브랜드 명을 밝힌다고 밝혔다.

'종업원이 주는 대로 마신다'고 답한 비중이 '20.5%'인데 반해 '특정 브랜드를 달라고 주문한다'는 대답은 무려 '79.5%'에 달했다.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꼽은 브랜드는 '카스'로 54.5%를 차지했다. 2위 브랜드는 13.6%, 3위 브랜드는 12.2% 순이었다.

맥주가 특정 제품에 대한 충성도가 낮은 '저관여' 제품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트렌드에 민감한 20대 젊은이들은 외식할 때에도 맛과 품질, 경험, 만족도 등을 따져 자신이 선호하는 맥주 브랜드를 소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이디인큐 관계자는 "맥주는 그 동안 가전제품이나 스마트폰과 달리 소비자 관여도가 낮은 상품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20대 젊은 소비자층 사이에서는 개인의 취향과 주관을 적극 반영하는 고관여 제품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평소 외식 시 술을 함께 마시는 빈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10번의 외식을 할 경우 평균 5.57회는 식사와 함께 술을 즐긴다고 대답했다. 20대 남성은 5.61회, 20대 여성은 5.53회라고 응답해 성별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20대 후반(25~29세)이 외식 시 술을 함께 즐긴다고 대답한 빈도는 6.17회로, 20대 초반(20~24세)의 4.77회와 비교하면 29% 가량 높았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20대 초반에서 후반으로 갈수록 높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외식 시 맥주와 함께 먹는 음식으로는 '치킨 등 튀긴 고기류'가 72.4%로 가장 높았다. 그 외에 '삼겹살/갈비 등 고기 구이류(13.0%)', '피자/파스타 종류(6.4%)' 등이 뒤를 이었다. 소주와 함께 먹는 음식으로는 삼겹살/갈비 등 고기 구이류'가 50.8%로 1위를 차지했고 '국/탕/찌개 종류(19.8%)', '회 종류(15.4%)' 등의 답변이 나왔다.

뉴시스

중기부 광주 · 전남청-광주지방세무사회 업무협약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도우미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청(청장 김진형)은 지난 19일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 김영록)와 호남지역 영세중소기업들의 '일자리 안정자금'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업무협약을 하였다.

이는 영세중소기업의 경우 자체 회계인력이 부족하여 주로 세무사가 회계 관련 업무를 대행해 주고 있어 일자리 안정자금의 원활한 신청을 돕기 위한 것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은 30인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월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월13만원 지원한다.

이날 협약식에서 중기부 김진형 광주·전남청장은, 호남지역 700명의 세무사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의 도우미를 자처한데 대해 감사의 말을 전했다.

김영록 광주지역세무사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중소기업들이 쉽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서은홍 기자

지역공감.미래창조.정론직필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車 수리 '대체부품' 사용시 부품비 돌려준다

다음달부터 자기차량손해(자차) 사고로 자동차 수리 시 '품질인증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부품비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대체부품은 범퍼나 휀더 등의 외장부품을 말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품질인증부품 특약'을 마련하고,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품질인증부품 특약은 자동차를 수리할 때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인 순정부품 대신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순정부품 가격의 25%를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시장은 해외와 달리 대체부품이 활성화되지 않아 순정부품 위주의 '고비용' 수리관행이 지속돼왔다.이는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했다.

새로 신설되는 품질인증부품 특약은 자차 사고 중 ▲단독사고 ▲가해자 불명사고 ▲일방과실사고 등에 적용된다. 쌍방과실이나 대물사고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특약은 자차 담보에 가입하면 별도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된다. 특약 신설 이전 가입자는 보험사에 요청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국산차의 경우 현재 대체부품 생산이 이뤄지고 있지 않아 시행 초기에는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

뉴시스